

꿈★은 이루어진다.

현장의 목소리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광고 게시물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곤란하겠죠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번호 : 13756

글쓴날 : 2004-05-22 11:52:30

글쓴이 : 윤일성

조회

제목: 여러분 벌써 지리산 폭력사건을 잊었던 말입니까.

노사대토론회에 폭력주동자 류춘용이 참가한다니!!

회사의 경영위기, 노동조합의 몰락
그야말로 KT와 KT노조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가운데 노사대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여 관심들이 적지 않은 데 참가자들 중에서 노조 발제자로 류춘용이 나서
'새로운 KT노사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김
14
호
2
8

지난주 발생한 지리산 수련관에서 조합비로 출장비를 뺄땀치고(남원으로 출장꿈어
숙박비와 식대등 조합비 남용- 회계감사 요구사항) 여성국장들을 호스티스삼아
가요주점에서 양주로 추태를 부리다가 항의하는 지부장을 폭행한 그 사건을 정녕
동지여러분은 벌써 잊고 있던 말입니까?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 실명위기까지 몰고가고, 윤일성을 시켜 고막을 찢어
버리고, 부상으로 인해 쓰러진 지부장을 발로 찢발아버리고 이후 똥으로 피신해
있는 사람을 세차레나 쫓아가 추가 폭행을 가한 류춘용,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추가 사실이 또 있더군요..... 지리산 수련관에 돌아온 이후
새벽5시이후에도 수련관안에서 류춘용이의 추가 폭력이 또 자행 되었던군요..
과연 인간의 탈을 쓰지 않고선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류춘용이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찬 이 게시판에,
지재식과 류춘용이의 의대로 노사대토론회를 크게 부각시키면 지리산 사건은 그
속에 묻혀버릴 것이고 회색이 될 것이라는 계획대로 벌써 이 이야기가 조용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부장을 우습게 보고 지방본부를 벌거지보다 인정하지 않는 지재식이 집행부의 만행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노사대대톤회.... 웃기는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일관한 회의 였더군요.

지방본부 위원장이 참석을 하면 자기들의 야비한 모습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대회 개최 전날 지방본부에 전부 전화 걸어 참관인 자리가 없으니 참석하면 안 된다고 연락을 전부 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 했습니다.

얻어낸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회의내내 조합간부들은 발언을 하다말고 지재식이나 류춘용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회의를 하다말고 마쳐버렸다고 합니다.

노사대대톤회를 연 것 만도 성공했다....그리고 이젠 지리산건도 문제가 이 쪽으로 눈들이 돌려졌으니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웃음을 짓더군요. 자. 이젠 두다리 쪽 뺨고 자자..히히(류춘용이가 윤일성에게 한말)

12개 지방본부와 470여 지부장 3만 8천 조합원들이 지리산 사건의 결과를 지재식에게 물을 것이다.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뻔뻔한 류춘용... 영원한 조직패들의 보스로 굴림하는 지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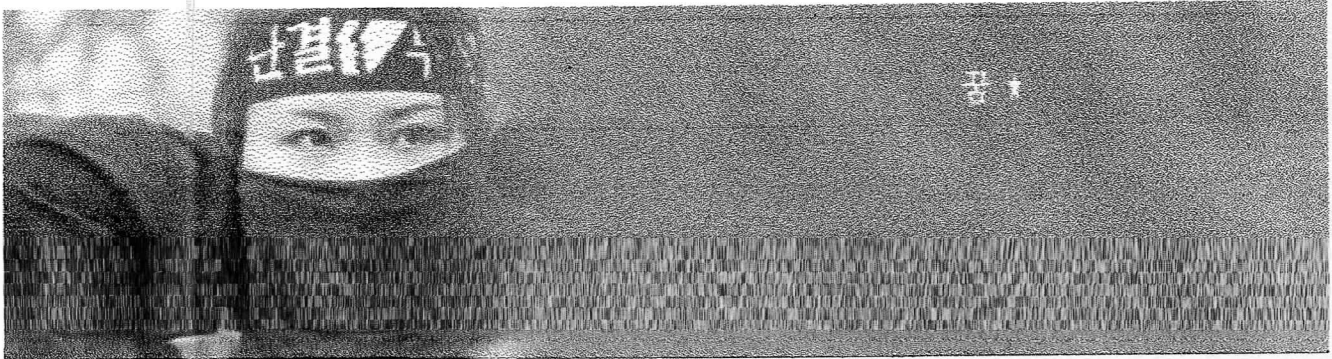
천하의 추놈이 꼬봉... 윤일성..... 너희가 정령... 권력이 무한정 영원하리라고 보는가... 기다려라... 조합원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잊지마라. 그때까지 너거 하고 싶은대로 멋대로 해보아라. 피해는 피로 보답을 해 주리라. 천하에 어용... 지재식-----

덧말 이름: 비밀번호: 저장



Powered by 노령 :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Cop



현장의 목소리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광고 게시물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곤란하겠죠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번호 : 13761

글쓴날 : 2004-05-22 12:26:52

글쓴이 : 류춘용

조회

제목: 이젠 그만 좀 하자. 지겹다.

남자가 술을 그것도 양주로... 또 그것도 조합비 빵땅 쳐서 먹을 수 있게 뭐..
그것 갖고 자꾸 거러냐.

그만 좀 하자. 이젠 너무 지겹다.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너거 6대. 7대도 다 해 놓고.. 내가 하면 난리냐.

여성간부 좋아하네.. 게내들이 조합은 뭘 알아... 내가 지방 여성국장들 뽑을때
절고 이쁜 걸로 좀 뽑았다. 이번 지리산에서 처럼 고평 좀 써 먹을려고.. 뭐
꼽냐. 야 꼽으면 너거가 조직처장 하고 지재식 위원장님 최 측근이랑 꼬봉 해
버트리면 되 질 않냐. 아거들아 그만 좀 하자. 이젠 지겹다.

노사대토론회를 끝내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느네. 또 시작이냐.

그만 좀해라... 좋게 야기 할때.... 알았냐.... 추적해서 아작내기 전에...

1. 현장맨 : 05-22 - 야.. 간부놈 겁나네.. 너거들 믿고있는 우리가 거지같다. 어용노조 광패간부 참 미
네.. 어이 너거들 kt노조 작살낼라고 걱정했나?? 그 꼬라지가 뭐꼬.. kt 다죽자 .. 다
해서 자살하자... 뭐꼬 이게 추적게소리 (x)
2. 지자식 : 05-22 - 야 추놈아.... 진짜 뻔뻔한 놈아 돈으로 사건 종결하면 실추된 조합간부의 명예는
보상할래? (x)
3. 조하븐 : 05-22 - 지당하신 말씀..사나이 배품 밑의 일을 거론하는 놈은 남자도 아니야..다 잘라내
안자 오중노 자샤.. (x)
4. 너죽는다 : 05-22 - 미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x)